‘쾌락의 쳇바퀴’ 탈출구

(시편 15:1~5)

1.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
2.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3.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4.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5.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 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오늘 말씀 중심으로 <“쾌락의 쳇바퀴” 탈출구>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쾌락의 쳇바퀴” 탈출구

심리학자 필립 브릭맨과 도널드 캠벨이 1971년에 “쾌락의 상대주의와 좋은 사회 만들기”라는 책인지 논문인지에서 ‘쾌락의 쳇바퀴’라는 이론을 소개했습니다. 내용은 로또에 당첨된 사람들을 만나서 그 행복감이 얼마나 지속되었는지에 대한 연구를 했는데 평균 3개월 이상을 가지 못한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행복감의 지속기간은 로또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승진을 원하던 사람이 드디어 승진을 하게 되었지만 그 행복감 역시 오래가지 못하고 사그라지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꿈과 비전을 갖습니다. 그리고 그 비전이 이루어졌을 때에 마음에 느껴지는 행복감은 마찬가지로 짧은 기간일 뿐입니다. 사람들이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에 얻는 행복감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사그라집니다. 그러면 또 다른 행복감을 주리라 믿어지는 일을 소원하고 또 행복감이 사라지게 되면 더 큰 자극의 행복감을 얻기 위해 매진해 나갑니다. 이러한 반복되는 현상에 대해 심리학자들이 쾌락의 쳇바퀴(Hedonic treadmill)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예를 들어 연봉이 올라가면 당연히 즐겁습니다. 그런데 연봉이 오른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가지 않아서 그 기쁨은 사그라집니다. 처음 연봉이 올랐을 때의 수준의 행복감을 느끼려면 이미 오른 연봉의 40% 이상이 올라야 한다는 시험결과가 나왔습니다. 행복감

이 유지되려면 첫 연봉 인상으로부터 3개월 안에 오른 연봉에서 40%가 올라야하고 그 오르고 오른 연봉의 40%가 또 올라야 행복감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에 이런 회사는 없습니다.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쾌락의 쳇바퀴라는 현상 자체를 찾아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원인을 정확하게 모른다는 사실이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으로 내놓는 일들도 단지 암중모색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정답을 찾은 게 아니라 깜깜한 가운데서 방안을 더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유를 알고 있습니다. 마음은 채워질 때에 기쁨과 행복이 주어집니다. 본래 마음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주 안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 비교하여 마음을 채울 수는 없습니다. 우주 전체도 하나님보다는 무한히 작은 사이즈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신비하게도 우주에 비하면 티끌보다 못한 인간의 마음이 우주보다도 크신 하나님을 모시도록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고 싶은 것을 소원하거나 비전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을 무한히 수축시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승진은 하나님의 크기에 비하면 무한히 작은 일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승진을 비전 삼고 소원 삼는 동시에 마음은 수축됩니다. 실제로 승진이 이루어져서 마음에 꽉 차지만 수축된 상태이고, 승진이 마음의 벽에 닿아서 수축된 상태를 유지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래 크기가 하나님 사이즈이기 때문입니다.
처음에는 승진이 마음의 벽에 닿고 있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수축했던 힘이 빠지기 시작하면 마음은 넓어집니다. 그 넓어진 만큼의 허기를 달래기 위해서 또 다른 비전과 꿈을 갖게 되지만, 그것을 다시 이루어도 마음은 또 느슨해지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지구를 통째로 가져도 이 게임은 끝나지 않습니다. 큰 바위를 언덕 위로 굴려 올리면 다시 밑으로 굴러 내려올 줄 알면서도 다시 굴려 올리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시지퍼스의 저주가 바로 쾌락의 쳇바퀴인 것입니다.
제가 '비전'이라는 말에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거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를 이루고 싶다는 것은, 하나님 사이즈의 마음을 수축시키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비전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쾌락의 쳇바퀴에 갇혀 살 때에 일어나는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마음이 하나님 사이즈로 만들어져 있다는 것을 모르고, 또한 쾌락의 쳇바퀴를 도는 동안에 사람의 생각과 행동이 얼마나 부패했는지도 모릅니다. 예를 들어 로또 100억에 당첨되어 기쁨이 유지되는 동안의 생각과 행동을, 사기를 당해서 돈을 잃었을 때에 나타나는 생각과 행동을 비교해보세요. 로또에 당첨되어 기쁨이 충만한 상태에서는 사람이 온유해지고 너그러워져서 자꾸 남에게 한 턱을 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웬만한 잘못을 다 용

서해줄 수 있는 관대함이 자리 잡게 됩니다. 기쁨의 크기는 용서함의 크기와 비례하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국경일에 사면(赦免)이 이루어지는 이유도 이와 같습니다. 기쁨이 있으면 용서가 가능해집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하나님으로 충만했을 때에 자기를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어떻게 보자면 당연한 행동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인격이 처음부터 훌륭했던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기쁨으로 가득 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이렇게 하나님으로 차 있지 않고, 수축된 상태의 다른 것으로 차 있으면서 기쁨이 유지되고 있을 때에 말과 행동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말과 행동은 마음에 충만한 기쁨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른 결과물입니다. 마음의 충만함의 정도에 따라 좋은 행동, 나쁜 행동, 못돼먹은 행동, 그저 그런 행동 등의 스펙트럼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점을 알고 오늘 시를 읽으면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무심코 넘어가거나 시시콜콜 따지면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먼저 본문 1절의 질문을 주의 깊게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뒤에 나오는 2절의 대답과 연관시켜보면 참으로 이상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지은 이 시는 입당할 때에 부르는 노래로 불렸으리라 예상됩니다.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에 도착하면 성전 문 앞에서 성전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을 묻습니다. 안에서 제사장이 대답을 해주거나 반대로 제사장이 ‘여호와여 도대체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가 누구입니까’라고 물을 수도 있습니다. 순례자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대답합니다. 내가 지금 예루살렘까지 순례의 길을 와서 성전 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이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함께 사는 기간을 누리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합당한 자인가를 스스로 돌아보며 대답할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전에 들어가서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머물 수 있는 조건입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즉 1절의 질문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구원이 어떤 사람에게 주어질 것이냐에 대한 질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흔히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런 식의 대답이 아닙니다.
2절부터 5절까지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의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 그의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라는 대답은 삶의 현장에서 벌어지는 너무나도 일상적이고 구체적인 행위와 관계되어 있습니다.

선민이냐 아니냐의 혈통여부나 사회적 직책이나 신분은 관계가 없습니다. 말씀이라든지 교리에 대한 지식정도 등도 무관합니다. 모두가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취했던 나의 행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유일하신 신 되심과 창조주 되심에 대한 교리적인 믿음의 고백여부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다릅니다. 우리는 교리문답을 통해 믿음을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고 구원을 얻었다고 확신을 하지만 오늘 본문의 대답은 이런 식의 내용을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이런 예는 찾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0장 15절에서도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 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고”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 9~10절에서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것과 상통하는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이야기는 어떻게 나온 것이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가에 대한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1절의 질문에 다시 한 번 주목해 보면, 질문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 얻음이 여전히 관철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이까’라는 질문 속에는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있고 싶어 하는 강렬한 열망이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본문 이해의 핵심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장막에 머무를 것이며, 누가 주의 성산에서 함께 사느냐는 질문 속에는 여호와와 함께 머물고 여호와와 함께 살기 원하는 강렬한 열망을 전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허락을 받아 성전에 들어갔다고 할지라도 그곳에서 돈이 생기거나 승진이 생기지는 않습니다. 연봉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당장 건강이 회복되는 것도 아닙니다. 자녀들을 일류 대학에 보낼 자격이 생기는 것도 아닙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 계십니다.
하박국 3장 17~18절에서 “비록 무화과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내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에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라고 말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또한 베드로가 변화산에서 자신이 비전을 가지고 추구하던 모든 것을 망각한 채로 “…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라고 말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산에서 주어진 것은 돈 명예 출세 건강 승진 같은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단지 하늘나라에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뿐인데 베드로는 그것을 좋아하여 세상일을 까맣게 잊어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강력한 열망이 이 질문에는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즉 이 질문은 성전으로 들어와 봐야 세상에서 좋다는 것은 아무것도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 얻을 수 있는데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겠다는 열망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할 수 있는데 믿음과 관련하여 소망이 무엇입니까?
‘믿음’이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해서 영원토록 내게 유일한 기쁨이 될 수 있는 대상이 누구이며 무엇이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전원주택을 비전으로 삼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돈을 모으고 있다고 해봅시다. 그 이유는 전원주택을 짓고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갖는 모든 비전과 꿈은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기 때문에 생겨납니다. 그것을 이루면 행복과 기쁨이 주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도 예수님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하나님을 믿기 위함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지금 이 순간부터 영원까지 내게 유일하신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기쁨과 만족의 원천이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길을 놓으셨기 때문이고, 성령님을 믿는 것은 하늘에 계신 영이신 하나님을 내 마음이 느낄 수 있도록 감각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우리에게 소망이란 무엇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소망의 특징은 이 세상 것을 비전으로 삼아 소망하는 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소망은 믿음에 종속되는 것입니다. 100억 로또에 당첨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갖는 이유는 100억이 있으면 기쁠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언젠가 100억을 갖게 될 미래를 생각하면서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소망의 특징입니다. 지금 어떤 여자와 결혼하는 것을 진심으로 소망하는 사람은 동시에 100억 로또에 당첨되기를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이러한 바람은 소망이 아닌 막연한 기대일 뿐이고 미신에 불과할 뿐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상정보에 대해 수긍하는 것을 믿음으로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들이시라는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시며 십자가에서 내 죄를 사해주셨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러한 수긍함을 믿음으로 생각해왔습니다. 그러나 기쁨을 놓친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 착각일 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기쁨의 원천이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나를 이끄시는 유일한 길이라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믿음을 통해 소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의 유일한 기쁨이고, 예수님 때문에 그 하나님을 가질 수 있고 그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할 것을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지금 돈을 벌겠

다고 발버둥치는 이들의 기쁨은 돈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건강이 기쁨이고 자녀의 일류대학이 기쁨입니다. 결혼이나 전원주택이 기쁨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는 것은 거짓말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소망은 갖자마자 지금 그 소망으로 인해 기뻐하는 것입니다. 돈을 소망하는 사람은 돈을 가진 자신의 모습을 그리며 기뻐합니다. 결혼을 소망하는 사람은 결혼한 모습을 그리며 기뻐합니다. 승진 할 것을 지금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독 하늘에 대한 소망만큼은 죽은 다음의 일로서 미루려고 합니다. 이 세상 것들에 대한 비전이 이루어지는 소망을 기뻐하느라고 하늘의 소망을 기뻐할 마음의 여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도 소망한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죽은 다음에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 믿는다고 하면서 그것을 소망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늘나라에 갈 것이라고 믿는 자는 곧 하늘나라를 지금 나의 유일한 기쁨으로 여기는 자입니다. 하늘나라에 가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믿고, 죽은 다음에 그렇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면 그것이 소망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소망이라면 지금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유일한 기쁨으로 열망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했을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 함을 기뻐하는 소망 속에서 살았다면 2~5절의 말씀처럼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났으리라는 것입니다. 이 행위들은 하나님과 함께 거할 사람의 자격을 부여하는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을 마음속에서 작동시킨 자에게서 이런 행위가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순례자들은 하나님의 성전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 사업도 하고 장사도 하며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믿음 안에서 유일하게 기쁨으로 여긴 대상이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진정한 기쁨이 주어진다고 믿었습니다. 장사하는 현장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함을 기뻐하면서 믿음 안에서 소망의 살았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장사를 하면서도 폭리를 취하지 않습니다. 폭리를 취해서 돈이 더 많이 생기는 것이 기쁨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일은 돈이 기쁨인 사람에게나 해당되는 일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의 삶은 이 땅을 기쁨으로 삼는 자들과는 완전히 다른 행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소망을 갖는 이유는 하나님이 유일한 기쁨이 되신다는 믿음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아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영원한 착각 속에 빠지는 것이며 이 세상 것을 기뻐하면서 쾌락의 쳇바퀴에 갇혀 살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쾌락의 쳇바퀴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소망가운데 지금 기뻐해야 합니다. 어제 14편에서 이야기한 대로 지금 당장은 기쁨이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기쁨이라는 것을 지각하는 믿음이 있어야 벗어날 수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기쁨과 행복과 만족의 유일한 원천으로 믿는 믿음을 가져야만 시지퍼스의 저주와도 같은 쾌락의 쳇바퀴의 삶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 돈이 없어서 걱정한다면

돈의 힘을 믿는 것입니다. 자식을 닦달하고 일류대학에 들어가게 하려고 죽자고 달려드는 이유는 일류대학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건강과 외모에 목숨을 거는 이유는 그것이 행복을 줄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외모와 건강을 달라고 기도하고 자녀를 일류대학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돈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부리려고 하는 것일 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기쁨이 되심을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만이 반복되는 허무함의 연속인 쾌락의 쳇바퀴로부터 해방입니다. 이 믿음으로 내 마음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가 또 돈을 믿었구나. 내가 또 건강을 믿었구나. 내가 또 이 세상 것들을 믿었구나.'라고 십자가에서 이 마음 상태를 죽이는 것입니다. 집에 대해서, 길가는 외제차에 대해서 소망하려는 마음을 또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 세상에 대한 믿음과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십자가에서 죽은 것으로 인정함을 반복할 때에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과 정이 듭니다. 하늘이 내 집처럼 여겨지게 되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지금부터 하나님을 기뻐하므로 하늘을 경험할 수 있고,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달라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본문에서 제시한 행동은 표시이고 열매이며 결과입니다. 이런 행동이 없었다면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소망이 없었다는 것이고, 그러한 소망이 없었다는 것은 곧 하나님이 기쁨이시라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되묻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세상에 대한 믿음과 세상 비전에 대한 소망이 끊임없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쾌락의 쳇바퀴를 벗어나 진정한 행복의 원천이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